

2022.8.15 ~ 8.19

베트남 하노이

## 국외출장 복명서

2022. 09

**물류 · 해사산업연구본부**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신수용 부연구위원, 김동환 전문연구원

## 1. 출장목적

- 해외 성공적으로 진출 및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한상물류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현지 유망사업 발굴 등 국제물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도모
- 베트남 진출 우리 화주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국제물류 지원 정책 발굴

## 2. 출장자

-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신수용 부연구위원, 김동환 전문연구원

## 3. 출장일정

- 일정 : 2020년 8월 15일(월) ~ 8월 19일(금), 3박 5일
- 대상지역 : 베트남 하노이

일시	지역	내용	비고
8.15(월)	부산→하노이	- 11:00 부산 출발, 13:30 하노이 도착	VN 427
8.16(화)	하노이	- 베트남 투자청 한국기업 해외투자 담당자 미팅 - 베트남 하노이 진출 물류기업 간담회 개최	
8.17(수)	하노이	-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8.18(목)	하노이	- 하노이 진출 주요 물류기업 미팅 - 베트남 정부(과학기술부) 한국기업 담당자 미팅	
8.19(금)	하노이→부산	- 01:00 하노이 출발, 07:05 부산 도착	VN 426

## 4. 출장 주요 내용

### 1) 베트남 투자청 한국기업 해외투자 담당자 미팅

-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00~12:00
- 장소 : 베트남 투자청 내 회의실
- 참석자 : Mrs. Hien 서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해외사업 추진 및 정부정책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함
  -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공부문 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나, 현실적으로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한계가 발생
  - 공동물류센터의 경우 기업들의 비즈니스 확장 및 수익성 증대 등 수혜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임에도 현지 투자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
  - 베트남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요소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함
- 최근 기업 신규 투자 및 법인 설립 동향을 살펴보면 하노이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기업들의 진출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전기/전자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 물류센터를 4~5곳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에는 자동차, 화학소재, 금속 등의 부문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코로나19 회복 추세에 따라 신규 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내륙물류인프라 건립 사업 추진 방안 검토 필요
  - 베트남 정부 및 현지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한국기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를 진행하되 철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2) 베트남 진출 물류기업 정책 간담회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18:00~19:30
- 장소 : 하노이 롯데호텔
- 참석자 : 베트남 하노이 진출 한상물류기업 약 10개사

### 1. 베트남 진출 우리 물류기업 애로사항

- 베트남 물류시장 내 외국 자본 투자제한으로 현지 사업 확대 등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 완화를 통한 외국 지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베트남 정부가 과거 해외투자에 대한 최대 49% 지분보유율 제도를 완화했음에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은 여전히 해외투자에 제한이 있어 베트남 현지 운송사의 운임담합 등 우리 물류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물류센터 운영은 100% 지분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실제 컨테이너를 다루는 Depot 및 ODCY 등 ‘컨’ 관련 내륙물류인프라에 대한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임
  -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컨테이너를 통해 반입·반출하는 가운데 실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사업은 여전히 49%로 외국자본 지분을 제한하고 있어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이 필수적임
- 또한 수출입 통관의 불투명성으로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얻는 피해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 또한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진출 대형 화주기업(삼성전자 등)과의 거래는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특히 대기업 물류자회사(판토스, 삼성SDS 등)의 성장은 결국 중소기업의 매출액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
  - 베트남 진출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대규모 물동량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대형 물류기업의 성장 이면에 중소중견물류기업의 신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실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2. 정부정책 건의사항

- 베트남 내 물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이 필수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신뢰성 높은 현지 파트너사 육성 등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사업 확대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 지원 필요
- 중소기업 관점에서 내륙물류인프라(물류센터 및 Depot 등) 구축 및 운영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시설 투자가 여의치 않으며 이에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개편을 통해 지원 체계 수립 필요
  - 현재 코트라가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는 운영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수익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공동물류센터 명칭을 '중소기업물류센터(가칭)'으로 변경해 실제 중소기업 및 화주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진출 물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문제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수출입 통관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 요구됨

### 3)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14:00~17:00
- 장소 : 하노이 롯데호텔
- 참석자 : 베트남 정부 관계자 및 베트남 진출 우리 화주물류기업 등 약 50명

#### [발표1] 우리 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국제물류 정책 방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나영환 센터장)

- (글로벌 공급사슬 변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사슬이 크게 변화했으며, 기존 비용 중심의 SCM에서 리스크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
  - 지난해 미국 서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글로벌 물류대란은 코로나19 확대로 침체된 경제가 일부 회복되면서 수입물동량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 코로나19로 인해 미 서안 항만적체 및 항만 내 인력 부족 등으로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해상 및 항공을 비롯한 여러 운송수단의 물류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 이에 전 세계 연간 '컨' 물동량 2,400만TEU 가운데 100만TEU가 해상 및 내륙 운송 적체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및 중국으로 물류대란 현상이 이어졌음
-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수출입 및 무역규모 대비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물류성과지수는 2018년 기준 25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무역규모 8위에 달함
  - 우리 기업의 업종별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약 75,000개에 달하며 이중 제조업(43%), 도소매업(19%)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류기업(운수 창고업)은 약 1,900개로 약 2% 수준임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①물류전문인력 부족, ②물류지원 정책 부족, ③화주기업과 협력 부족, ④물류기업 역량 부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국제물류정책 주관 부처 일원화 필요, 글로벌 공급사슬 위기 대응 시스템 부재,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미비 등 국제물류 관련 여러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글로벌 공급사슬 관점에서 물류 기능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부처간 물류 거버넌스 단절로 인해 종합정책 및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물류전문인력양성 및 정보시스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발표2] 베트남 물류분야 투자 환경 및 사업 기회 발굴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r. Nguyen Anh Tuan)

□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물류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해외투자유치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며,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물류산업이 베트남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6%까지 늘릴 계획이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최대 20%까지 늘려 베트남 물류시장의 전반적인 규모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임

- 또한 대부분 2자 물류로 수행되고 있는 자국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3자 물류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해당 비중을 50~60%까지 늘려나갈 예정임

- 전체 물류비 비중을 GDP 대비 20% 이하로 감소하고 LPI 또한 50위권 이내로 진입해 자국 물류산업에 대한 양질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인 방역 및 경제 상황을 유지하던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한 바 있음

- RCEP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예상되며, 베트남 FDI 투자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과의 교역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물류부문의 전망이 긍정적임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시장 및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베트남 경제의 해외투자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전자 및 섬유업종에 대한 해외투자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전체 수출 가운데 해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특히 전기·전자 및 섬유부문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외투자기업 유지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 해당 산업에 대한 물류부문의 투자 및 사업 확대 기회 증가 예상

### [발표3] 베트남 물류산업 현황 및 주요 물류정책 소개

- (Vietnam Logistics Association, Mr. Nguyen Toungh)

- 베트남 물류산업은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이 물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 내 약 30,000개 이상의 물류기업의 등록되어 있으며, 약 97%에 달하는 기업이 소규모 중소물류기업으로 대부분 국내운송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대비 인프라 및 물류효율성이 떨어져 물류비 또한 높은 수준이며, 3PL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임
  - 이에 베트남 교통부는 2050년 비전선포에 따라 2030년까지 항만인프라 개발 계획(Decision 1579/QĐ-TTg)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항만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함
- 자국 물류인프라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운송 및 통관 등 물류부문 취약구조 개선 적극 추진 예정
- 베트남 진출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핵심 투자 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
  - 하이퐁, 다낭 및 호치민 등 3개 지역에 대한 항만인프라 및 내륙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항만물류시장 진출 다각화



- 최근 베트남 내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항만 인근 혹은 도심을 중심으로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적극 인식하고 있으며, ICT기술 기반 물류분야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 주도 가능
- 주요 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중심으로 대형 허브물류센터 조성 필요  
→ 베트남 내 우리 제조업 다수 진출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물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점 물류센터 구축 필요

#### [발표4]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의 수출입 통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포엠파트너스, 판창헌 대표관세사)

- 베트남 진출 우리 제조기업의 대부분은 원자재 가공 후 국내 재반입 혹은 제3국 수출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원료 수입 통관의 어려움 지속
  - 2010년 이전 호치민 인근 공단을 중심으로 우리 제조업의 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남부지역 임대료 상승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북부 하노이 및 하이퐁 공단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확대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지 파견 인원은 5명 이하 수준으로 생산 및 공장 운영은 대부분 베트남 직원이 담당하며, 원료 수급 및 재가공 후 수출시 관세 문제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즉, 베트남 진출 우리 제조업은 EPE기업(수출가공기업)으로 특정 구역 내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혹은 산업단지나 경제구역 내에서 수출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의미함
    - EPE기업은 비관세 구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및 관세 혜택을 받으며, 이에 베트남 세관에서 정한 원자재 수입 및 가공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EPE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수출가공을 조건으로 원자재에 대해 대부분 조건부 면세적용을 받으나, 원자재 재고관리 및 정확한 수책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소요

- 베트남 진출 우리 제조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입정산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입 원자재에 대한 정확한 세관코드, 자재코드, HS CODE 확인 및 거래유형별 세관신고 프로세스 확립 및 시스템 적용
  - 수책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통관적법성 및 신고오류 등에 대한 검토 체계 수립, 회계내역과 통관내역의 일치여부 검토 등 필요
-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 회계 및 생산 관련 ERP시스템은 보유하고 있으나, 재고관리 및 원자재 수급에 대한 수책관리 시스템 부재로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정확한 관리 체계 도입 및 통관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발표5] 베트남 물류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베트남 하노이 한국물류협회, 김삼모 회장)

- 베트남 물류시장은 아세안 시장 내 규모 및 성장률 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물류비 및 노후 인프라 등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 물류시장 규모는 연평균 14%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베트남의 물류비는 GDP 대비 약 20% 수준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국가 평균을 상회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의 지원 및 정책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베트남 물류시장의 핵심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도로운송으로 타 운송수단 대비 높은 비용 및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도로운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임
  - 철도운송은 노후 인프라에 따른 낮은 이용률과 함께 물류비도 도로운송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 내 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다수의 우리 물류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 및 글로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짐
- 베트남 물류시장은 글로벌 물류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 베트남 물류기업의 2PL 중심 운영 형태가 주요 원인임
  - 이는 제조업 중심의 베트남 시장경제에서 글로벌 기업의 물류를 해당 기업의 파트너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 베트남 물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요 해외투자자들이 베트남 물류기업의 지분 매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물류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4~16% 수준으로 대형물류회사를 중심으로 M&A 가능성을 타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물류기업 또한 베트남 시장 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물류기업과의 M&A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응 방안 수립 필요

#### 4) 베트남 하노이 진출 물류기업 담당자 미팅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09:30~11:30
- 장소 : CJ대한통운 회의실
- 참석자 : CJ대한통운 공상혁 법인장, 하나로TNS 김재홍 본부장
-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로 공공부문의 투자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서 고민 필요
  - 북부 베트남 기준 하나로TNS, 세방 등 여러 물류기업들이 이미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공동물류센터는 공공부문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물류기업의 수익성 증대에 이점이 있는 투자 대상 모색 필요
  - 내륙 ICD 및 CFS 등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 주요 대상으로 고려 가능
- 기존 KOTRA 공동물류센터 성공/실패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북부 베트남 지역 또한 공동물류센터 사업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중국(실패사례) 물류시장의 경우 우리 중소 포워딩기업들이 대다수 진출한 지역으로 과다 경쟁으로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북부 베트남 지역도 중국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로테르담(성공사례)은 네덜란드 내 소수의 포워딩기업들이 진출한 가운데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사례로 물류기업 간 경쟁에 대한 부담이 덜 해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공공부문의 투자는 개별 단위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물류인프라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운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됨
  - 베트남은 화주가 직접 통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업 물류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대부분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중소 포워딩기

업들은 물류센터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음

- 이에 중소 포워딩기업들은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이용 가치가 낮음(기본적으로 물류창고에 관심을 두는 포워딩기업들은 극히 일부, 전체 15% 내외 수준)
- 물류인프라 조성이 어렵다면 먼저 공공부문이 나서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우리 물류기업에 저렴한 비용에 임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5) 베트남 과학기술부 한국기업 담당자 미팅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14:00~15:30
- 장소 : 하노이 롯데호텔 회의실
- 참석자 : Mr. NHUYEN VAN THOUNG
- 물류산업은 베트남의 핵심산업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국 물류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음
- 베트남 현지 물류기업의 경우 95% 이상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 대부분 개별 화물자동차 운영을 통한 1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대형 해운기업의 부재로 물류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비나라인 등 베트남 자국 선사는 내륙운송 및 ‘하노이-다낭-호치민’ 오가는 경로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기업은 HHM을 비롯해 고려, 장금, 남성해운 등 다수의 해운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CY 및 Depot 운영 등 항만물류인프라 확보를 통해 사업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음
- 베트남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미 상당부분 발전을 이룬 남부지역 보다는 북부지역에 더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소비재 산업 중심의 남부지역과 달리 북부지역은 전자, 화학, 의류 등 산업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화물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항, 항만, 도로 등 다양한 물류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북부지역 내 원활한 물류흐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베트남 시장은 개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무역개방을 늦춰왔으나 2~3년 전부터 개방 시점이 도래했으며,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EU와 베트남의 FTA가 체결을 토대로 시장 개방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물류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첨부1

## 2022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사진



### 첨부3

## 2022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

번호	소속	성명	직급
1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Nguyen Anh Tuan	본부장
2	"	phu van duc	과장
3	"	Son Le Ngoc	과장
4	"	Do Thi Quynh Nga	과장
5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NGUYEN VAN THUONG	서기관
6	Vietnam Logistics Association	Nguyen Tuong	수석고문
7	하나로티엔에스 베트남 법인	김재홍	법인장
8	(재)베트남 하노이 한국물류협회	김삼모	회장
9	성일해운항공 베트남법인	이상용	소장
10	YM2S	윤성애	대표
11	DAIJIN EXPRESS	김창수	상무
12	NEWWAY Logistics	양모세	대표
13	ASGU	정영민	대표
14	KEN 로지스틱스	김성주	대표
15	JDL	김태우	대표
16	자이언트 네트워크 그룹 호치민지사	최형민	지사장
17	자이언트 네트워크 그룹 하노이지사	지월구	지사장
18	포맨해운항공	김승현	상무
19	포맨해운항공	전승진	이사
20	HANA 로지스틱스	김헌태	대표
21	MISO VINA 중기연	이현석	회장
22	베트남 중소기업연합회	고창민	수석부회장
23	포엠파트너스	판창현	대표관세사
24	DAIJIN EXPRESS	김창수	상무
25	KERRY Logistics	김상균	차장
26	GK LOGISTICS	최병현	과장
27	BAROM	손영수	차장
28	ECU WORLDWIDE	조태형	팀장
29	V ONE	김정희	이사
30	KJTT	오희영	법인장
31	KGL	김치호	지점장
32	KGL	권혁재	과장
33	휴렉스	허민호	대표
34	포맨해운항공 하노이법인	서원재	법인장
35	남성해운 하노이지점	이윤석	지점장
36	(주)아모텍	김길섭	부장
37	Amkor Technology	김명섭	법인장
38	(주)씨에이치랩 베트남법인	이주병	법인장
39	YM25 베트남법인	윤성애	대표
40	ECU WORLDWIDE	이원규	차장
41	V one Logistics	김정희	이사
42	KOS 하노이지점	유현석	과장
43	판토스 하노이법인	지효상	팀장
44	SUNJIN 하노이법인	이익모	법인장
45	SCS	조성희	매니저